

보령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운영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

보령시의회가 지난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회기 첫 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석주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독단적인 결정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8일부터는 위원회별로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보령시 석

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임정이 포함되어 20일부터 3일간 총 15곳의 사업장을 방문했다. 사업장은 남부, 북부, 도서로 나누어 코로나시대 변화 대응 시설과 섬 개발 사업현장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확인,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마지막 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에 이어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3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